

핀셋의 포트폴리오 구성

김진(주식원탑)
前프랍트레이더(21년 경력)

목 차

1. 포트폴리오란?
2. 포트폴리오 VS 위험 관리
3. 포트폴리오 구성시 고려사항
4. 분산의 정도
5. 자산(주식)간 상관관계
6. 각 자산의 변동성과 비중
7. 극단의 포트폴리오 예시
8. 포트폴리오 관리란?
9.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게 되면

포트폴리오란?

- ✓ 어떤 자산(주식)으로 내 계좌를 구성할 것인가의 과정
- ✓ 주식 투자 3단계 중 2번째 단계, 투자 성과에 15% 내외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
- ✓ 단순히 어떤 자산(주식)을 살 것이냐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비중으로 구성하고 수정할 것이냐의 과정
- ✓ ETF가 있어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가능한 단계

포트폴리오 vs 위험 관리

#포트폴리오 구성

분산한다는 것

#위험

내가 틀리는 것

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위험: 시장 위험, 개별 종목 위험

#위험관리

포트폴리오의 구성단계는 그 자체로 위험 관리의 단계

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덜 다칠 것인가의 과정

포트폴리오 구성: 높은 수익을 낼 것인가의 과정이 아니라 위험관리의 과정

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사항

분산의
정도

각 자산(주식)
간의 상관관계

각 자산의
변동성과 비중

분산의 정도

- 몇 개의 자산(종목)으로 계좌를 구성할 것인가?
- 분산의 정도를 낮추면 : 위험 증가(틀렸을 때 내가 받을 손실의 크기) 시장 위험, 개별종목 위험이 둘다 높게 존재
- 위험이 증가하면 기대 수익은 당연히 증가
- 분산의 정도는 투자자에 따라 상이
- 분산의 정도를 올리면 결국에는 시장 위험만 존재(자산배분)
- ETF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많은 분산 가능

자산(주식) 간 상관관계

- ✓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구성하는가?
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구성하는가?
- ✓ 높은 상관관계 : 위험의 증가 (삼성전자 vs 하이닉스) 시장 위험의 증가
- ✓ 낮은 상관관계 : 위험의 감소 (삼성전자 vs LG유플러스) 시장 위험의 감소

각 자산의 변동성과 비중

- 여기서의 변동성이란 한번 움직일 때 그 폭이 크고 작음을 의미
- 높은 변동성의 종목 : 위험 증가, 기대 수익 증가
- 낮은 변동성의 종목 : 위험 감소, 기대 수익 감소
-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대형주보다 크고, 이익 변동성이 작은 회사의 주가 변동성도 작음. 베타로 활용 가능
- 변동성이 큰 주식의 포트 내 비중을 키울 것인가? 낮출 것인가?

극단의 포트폴리오 예시

- ✓ 극단적 위험 포트폴리오 :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며, 변동성이 높은 개별종목 두개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성
- ✓ 극단적 안정 포트폴리오 : 지수 ETF, utility ETF, 통신 ETF, 금 ETF, 미국 단기채권 ETF를 동일 비중으로 구성
- ✓ 정답은 없음. 현재의 시장 상황, 나의 위험 선호, 나의 기대 수익, 나의 투자 목표에 맞게 구성하면 됨. 단 무조건 고민해야 하는 것

극단의 포트폴리오 예시



분산의 정도 : 분산이 높은 것을 선호. Bottom up 접근을 하지 않는
찐쌈. 개별 종목 위험을 줄여야 함.



자산(주식)별 상관관계 : 높아도 상관없음.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,
포트폴리오로 시장 위험의 궁극적인 제거는 불가, 이는 자산배분으로 해결



자산(주식)별 변동성과 비중 : 변동성 낮은 주식을 선호. 같은 주도주에서도
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에 높은 비중

포트폴리오 관리란?

- 자신의 기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시장 변화, 보유 종목의 변화에 따라 내 기준에 맞추어 비중을 편입, 편출, 비중 등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
- 각 자산(주식)별 편입의 이유를 잊지 않고
- 종목별 등락으로 발생하는 비중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 조절해 나가는 것(매수금액 기준이 아닌 평가금액 기준의 관리)
- ex) 변동성 높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다면?

포트폴리오를 고민하게 되면!

- 현재의 내 계좌가 내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게 됨.
- 포트폴리오란 결국은 위험관리이기 때문에 나의 위험을 내가 조정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됨.
- 종목선정의 성패를 포트구성의 마법으로 희석시킬 수 있음.
- 더 이상 기관투자자의 영역이 아님

감사합니다

THANK YOU

핀쌤의 포트폴리오 구성

tymir1025@gmail.com

김진(주식원탑)